

2021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이정규	김홍갑	
개최일시	2021년 3월 11일 오후2시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담당부서	기획팀		
참석의원	송기창, 심채연, 여인권, 윤희수, 이성림, 전라옥, 홍규덕, 홍석환		기록자(간사)	이정규	기록일	2021.3.11.(목)
			불참의원	김홍갑, 노명희, 육정원		
			기타참석자	기획처장 오명전, 대학원교학팀장 조선미		
안건		1. 학칙개정(안) 심의 2. 대학원 학칙개정(안) 심의				
배포자료 및 기타		학칙 개정(안), 대학원학칙 개정(안) 부의안건				
■ 심의(자문) 사항						
1. 의장은 총 위원 12명 중 8명이 참여하여 2021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가 성원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포하다. 2. 의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처장이 학칙개정(안)을 설명하다. 윤희수 의원이 글로벌융합대학 신설 시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행정팀도 신설되는지 질문하고 기획처장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 보직 발령과 행정조직으로 글로벌융합대학교학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심채연 의원이 산학협력학부 신설 시 기존의 재직자전형 운영 학과(부)는 더 이상 재직자전형 입학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것인지 질문하다. 기획처장은 기본적인 학생들의 관리는 소속학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연계전공이나 비교과 프로그램들 운영 시 야간에 운영되는 부가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이야기하다. 홍석환 의원이 기존의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들과 산학협력학부 신설 후 입학하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를 우려하며 그와 관련된 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질문하다. 기획처장은 신설되는 3개의 학부는 모집정원이 없기 때문에 해당 학부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없어 입학생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답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관리·지원을 목적으로하는 조직이므로 특성화고교출신재직자전형 입학 후 보다 원활하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됨을 이야기하다. 홍석환 의원은 ‘대학’이라는 명칭과 ‘학부’라는 명칭을 갖고 있음에도 해당 단과대학과 학부 입학생 없이 지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다. 기업의 구조는 사업부와 행정조직으로 구성되는데, 신설 사업부의 경우 그 본질과 목적, 사업부 운영에 따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부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행정조직이 사업부를 지원하는데, 기업의 사업부에 해당하는 대학과 학부가 지원하는 행정조직의 포지션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다. 기획처장은 현재 본교에 여러개의 연계전공이 있지만 일부 연계전공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신설되는 단과대학과 학부에서 연계전공을 전담 관리·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하다. 또,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수요와 성과를 나타내는 연계전공의 경우 학사구조를 개편 시 입학정원이 있는 모집단위로 신설할 수 있는 시험환경(Test bed)의 역할도 가능할 것임을 이야기하다.						

2021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의장

결
재

이재규

김민준

■ 심의(자문) 사항

의장은 현재 구조 상 기초교양대학 밑에 기초교양학부와 융합학부가 있고 융합학부는 전공과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융합학부가 기초교양대학 산하에 있기에는 구조적인 애매함이 있음을 언급하다. 또 특성화고졸재직 자전형 입학생들이 근무를 마치고 저녁 7시부터 학교 수업을 듣는 경우 일반 학과 행정실은 5시반 업무를 종료하기때문에 재직자 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조직 필요성에 따라 신설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도 이야기 하다.

기획처장도 본 글로벌융합대학의 AI융합학부의 경우는 각 학과(부), 전공들 간의 융합을 보다 원활하게 활성화 시키는 장으로 활용될 것임을 부연하다.

홍규덕 의원이 지난 20년간 우리대학이 발전해 오면서 학과(부)가 현재의 52개로 늘어난 상황인데, 대학과 학부의 신설로 인한 팽창 뿐 아니라 기존의 학부, 전공에 대한 통·폐합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함을 언급하다. 큰 비전 안에서 지금 신설되는 글로벌융합대학이 어느 단계에 해당 되는지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융합학부 명칭에 'AI'를 덧붙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글로벌 수요형에 해당하는 글로벌학부의 신설은 개방시대에 맞추어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에 합당한 학부로 보인다고 신설에 찬성의사를 표하다. 기획처장이 AI융합학부 명칭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중점대학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내용이 학부 명칭에 반영된 결과임을 설명하고 해당 융합학부 명칭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답하다. 학사구조 개편은 구성원들에게 공표하기에는 아직 기획처 내 논의 단계임을 언급하며, 구성원의 논의와 합의 하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2-3년의 평가를 결친 후 그 결과를 학사구조 개편에 반영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다. 이번 글로벌융합대학의 신설은 학생들의 잠재적 수요 분야와 그 성과를 확인하고 검증해볼 수 있는 중간 단계임을 이야기하다.

전라옥 의원이 AI융합학부의 명칭과 실제 내용이 적절하게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학부 명칭 변경에 의견을 개진하다. 또 글로벌융합대학 소속의 전담 교원이 채용되는지 질문하다. 기획처장은 글로벌융합대학 교학팀의 행정단위가 구성될 것이고 기존의 교원 중에서 학장 보직자가 발령될 것임을 이야기하다. 전라옥 의원은 전공 전임 교원이 전력을 다하는 경우에도 공고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겸직의 교원 보직자 발령으로 목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다.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차원이라면 원래 있는 기초교양대학의 시스템을 개편하고 강화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로 확장·시험 해보는 것이 가능함을 언급하며 어려운 학교의 상황 속에서 대학과 학부 신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글로벌융합대학 신설에 반대의 의견을 표하다.

심채연 의원이 현재 우리대학에는 여러개의 연계전공이 있으며, 연계전공 명칭에는 만족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각 연계전공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관리에 불만을 갖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연계전공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연계전공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더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을 이야기하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숙명여자대학교라는 학교의 명칭 보다 오히려 글로벌서비스학부 등 학부나 학과 자체에 가치를 더 두고 우리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요와 관점이 있음도 언급하며 새로운 대학과 학부를 신설하며 글로벌서비스학부, 미디어학부 등의 독립학부를 통·폐합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다.

송기창 의원은 2018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은 88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바뀔 때마다 단과대학, 학부, 학과, 전공의 신설과 행정부처 신설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내부적인 인적 쇄신 없는 학제와 행정부처의 팽창은 행정비용과 지출비용만 증가되는 것임을 지적하다. 신설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학사구조와 행정구조의 통·폐합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다.

2021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 심의(자문) 사항

기획처장도 송기창 의원 의견에 동감하며 또 하나의 단과대학인 AI융합대학 신설을 소프트웨어중점대학 사업 보고서에 담아두어 신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조직의 통·폐합과 실질적인 학사구조 개편, 정원 재조정 진행을 위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홍규덕 의원은 관리형 단과대학을 3주기 평가에 대비하여 핵심 개념으로 준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대학 학제가 해가 갈수록 비대해 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평의원들의 우려 의견을 반드시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총장님의 장기적인 비전도 함께 보여주어야 이러한 관리형 단과대학 신설과 혁신에 대하여 전체 교수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지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한다.

기획처장은 조직 비대화를 지양해야 함도 맞지만, 3주기 평가를 대비하여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실적이 필요함도 이야기한다. 송기창 의원은 신설 보다는 통·폐합을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임을 이야기한다. 의장은 지금 제시한 내용은 현재 우리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하겠다는 관점에서 이야기 해야함을 이야기한다. 기획처장은 또한 심채연 의원에게 이번 단과대학 신설은 일부 특정 학부(과)의 통·폐합과는 무관한 것임을 이야기한다.

의장과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의원들은 다음번 학사구조 개편 시 오늘 언급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으다.

3. 의장은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한다. 대학원 교학팀장이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한다.

송기창 의원은 학과의 계열 변경의 경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당부하고, 대학의 수여 학위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도 유의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 홍규덕 의원이 송기창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며 앞으로의 기초학문으로써 물리학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와 교수 충원에 있어서도 공과대학으로만 충원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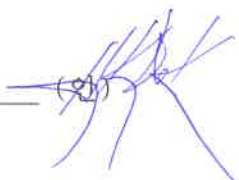
홍석환 의원은 직무의 전문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학부 응용물리학과 졸업생이 나오는 시점에서야 대학원의 물리학과를 공학계열로 변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학생들의 경력개발 로드맵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볼 때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타 학과, 전공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없는지를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함을 이야기한다. 의장도 타 학과, 전공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없는지를 대학원 교학팀장에게 질의하고 대학원교학팀장이 학부 공학계열 중 물리학과를 제외하고는 이미 공학계열로 변경하였음을 답한다. 대학원교학팀장은 학과 계열 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소속 학과 교원들과 학생들의 동의는 이미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통과하였음을 부연한다.

홍규덕 의원은 대학은 전체적인 발란스 차원에서는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특히, 영세한 규모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고 취업이 용이한 방향으로 학과명과 계열,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임을 이야기하고 전라옥 의원도 기초학문 분야의 유지는 원론적으로 워낙 지당한 말씀으로 맞지만 사회현장에서 요구되는 방향과 밀착하여 대학의 학과들도 변경하는 추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이야기 한다. 의장은 의원들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4. 의장은 3시에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한다.

2021학년도 제 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 장 <u>여 인 권</u> 	부의장 <u>윤 휘 수</u> (인) 
의 원 <u>송 기 창</u> 	의 원 <u>심 채 연</u> (인) 
의 원 <u>이 성 립</u> (인) 	의 원 <u>전 라 옥</u> (인) 
의 원 <u>홍 규 덕</u> (인) 	의 원 <u>홍 석 환</u> (인) 